

주요 노동동향

경제일반

- ◆ 2008년 3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
 - 2008년 1/4분기 산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소비는 전년동분기대비 3.8% 증가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소폭의 둔화를 보임. 투자는 1.0% 감소하였음.
 - 2008년 3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계절조정)로는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화학제품 등의 생산호조로 0.8% 증가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의 호조로 10.0% 증가하였음. 소비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2%, 0.4% 증가하였음.
 - 제조업 생산은 섬유제품과 컴퓨터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하였음(표 1 참조).
 -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로는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지난달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5.4% 증가하였음(1/4분기로는 전년동분기대비 6.3% 증가, [그림 2] 참조).

- 3월 소비재 판매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와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비내구재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도 1.3% 증가하였음. 투자는 통신기기 및 운수장비 등의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하였음.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9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하였으며, 향후의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1.0%포인트 하락하였음(그림 3 참조).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6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3월	2/4	3/4	4/4	연간p	1/4p	2월p	3월p
생산	산업생산	12.8	11.5	11.3	5.2	10.1	4.0	3.3	7.0	6.0	11.0	6.8	10.5	10.2	10.0(0.8)
	제조업 생산	13.4	12.1	11.8	5.6	10.5	4.1	3.3	7.1	6.1	11.2	7.0	10.6	10.0	10.3(1.3)
	출 하	9.7	9.0	9.2	3.8	7.8	5.1	5.0	7.2	5.5	10.6	7.1	8.8	7.7	8.6(2.2)
	수 출	13.1	14.2	15.7	5.6	11.9	6.7	7.7	9.9	9.4	16.2	10.5	14.4	13.0	15.7(16.0)
	내 수	7.1	4.9	3.8	2.2	4.5	4.1	3.3	4.9	2.7	6.8	4.8	5.2	4.1	4.1(15.6)
	서비스업 생산	6.2	5.4	4.5	4.8	5.2	5.4	5.4	6.4	7.2	6.8	6.4	6.3	5.9	5.4(-0.1)
소비	소비재 판매	5.3	6.1	2.9	4.5	4.7	5.7	6.0	5.2	7.1	4.5	5.3	3.8	2.9	4.2(1.3)
투자	설비투자	6.2	6.7	11.8	5.1	7.4	12.8	6.9	12.1	0.7	9.2	8.6	-1.0	-1.9	0.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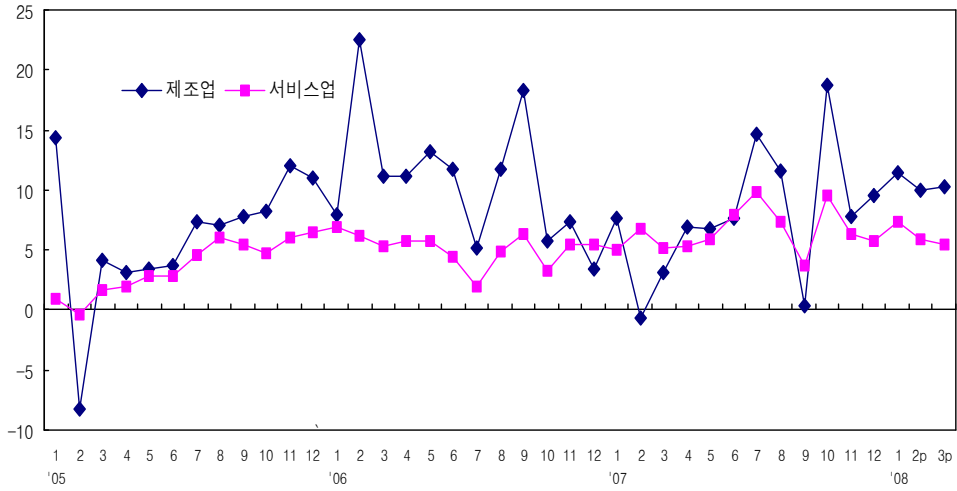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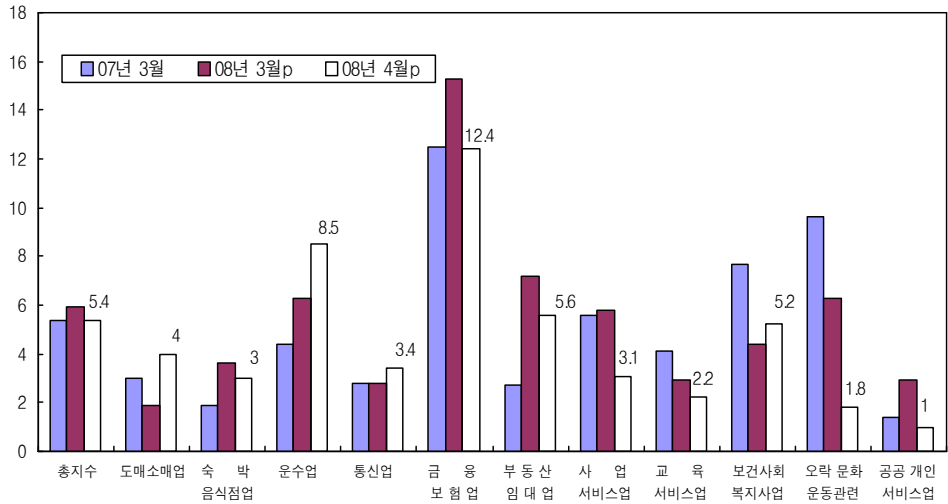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 『2008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200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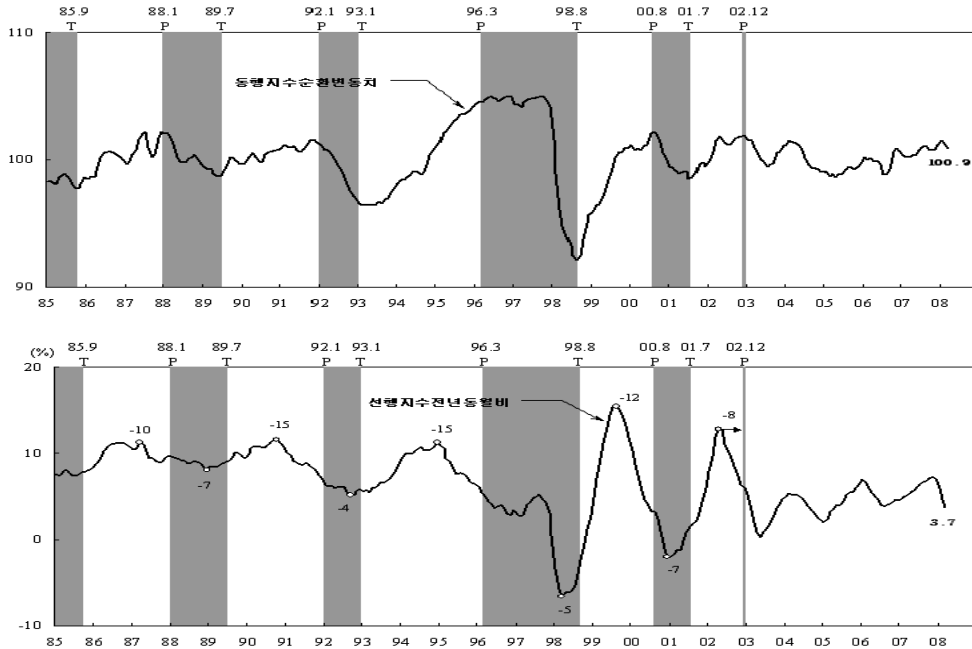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주: p는 정점(Peak), T는 저점(Trough)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2008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2008. 4.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감소

- 2008년 1/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3,85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60천 명(0.7%)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3,981천 명으로 90천 명(0.6%)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9,871천 명으로 70천 명(0.7%) 증가함.
- 2008년 1/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2.7%)이 전년동기대비 0.5%p, 여성(48.9%)이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함(그림 4 참조).

- 2008년 1/4분기 중 고용률은 58.5%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
 - － 남성의 고용률은 70.0%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하였으며, 여성의 고용률은 47.5%로 전년동기와 같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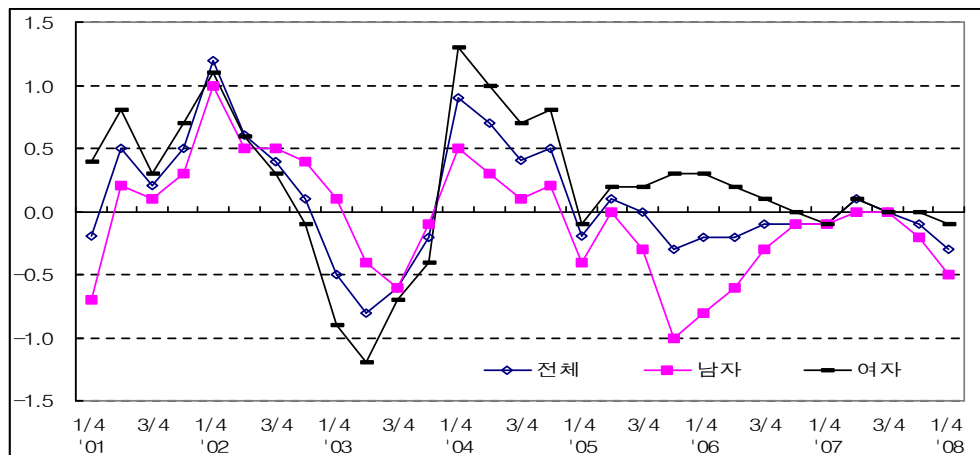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경제활동인구	23,692 (0.9)	23,960 (0.8)	24,489 (1.1)	24,367 (1.1)	24,316 (1.0)	23,852 (0.7)	23,703 (0.7)	24,114 (0.6)
참가율	60.8	61.4	62.6	62.1	61.8	60.5	60.1	61.1
취업자	22,841 (1.2)	23,121 (1.8)	23,698 (1.2)	23,610 (1.3)	23,582 (1.2)	23,051 (0.9)	22,884 (0.9)	23,305 (0.8)
고용률	58.6	59.2	60.6	60.2	60.0	58.5	58.0	59.1
실업자	851	840	791	756	734	801	819	810
실업률	3.6	3.5	3.2	3.1	3.0	3.4	3.5	3.4
비경제활동인구	15,305 (1.4)	15,084 (1.4)	14,647 (1.0)	14,865 (1.0)	15,000 (1.3)	15,575 (1.8)	15,724 (1.7)	15,350 (1.8)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자료: 통계청, 『2008년 3월 고용동향』, 2008. 4.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p,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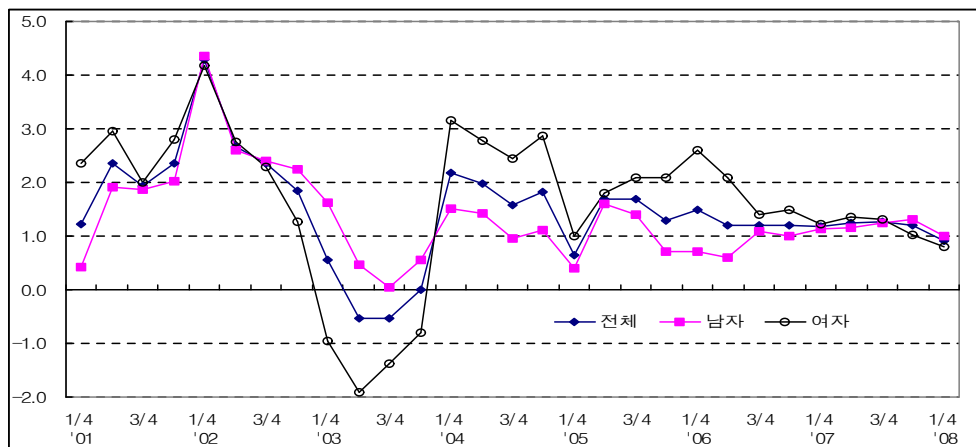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2008년 1/4분기 중 취업자는 23,051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09천 명(0.9%)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45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3천 명(1.0%), 여성 취업자는 9,59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7천 명(0.8%)이 증가함.
 - 2008년 1/4분기 중 실업자는 801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0천 명(-5.9%)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4%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함.
 - 남성 실업자는 52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3천 명(-7.6%)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7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천 명(-2.4%)이 감소함.
 - 실업률은 남성이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3.7%를 보였고, 여성이 0.1%p 하락한 2.8%를 기록함.
 - 2008년 1/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57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70천 명(1.8%)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2,51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7천 명(3.1%)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32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3천 명(1.1%)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521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6천 명 증가함.
- ※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915천 명(2003. 1/4) → 1,108천 명(2004. 1/4) → 1,356천 명(2005. 1/4) → 1,461천 명(2006. 1/4) → 1,485천 명(2007. 1/4) → 1,521천 명(2008. 1/4)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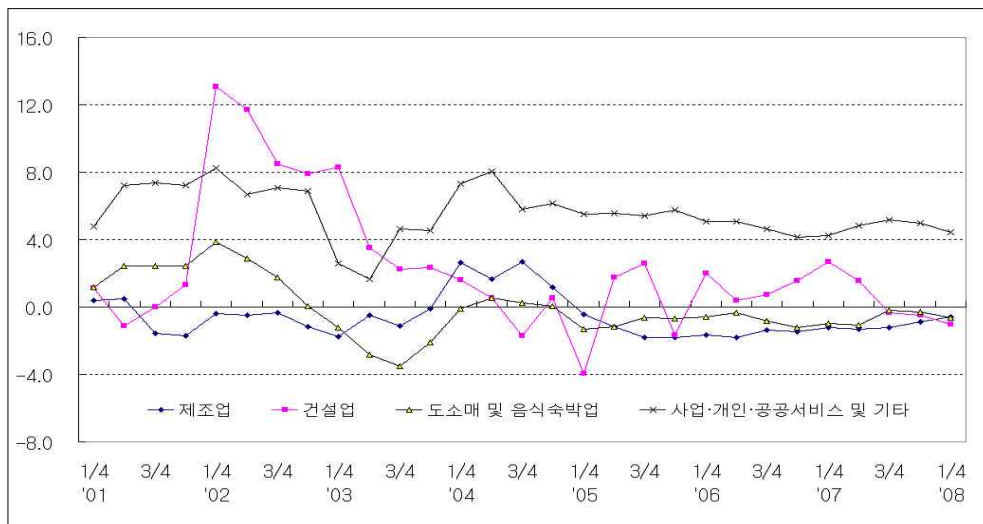
- 2008년 1/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27천 명, 4.4%), 전기·운수·통신·금융업(22천 명, 0.9%)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62천 명, -4.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7천 명, -0.6%), 건설업(-37천 명, -0.6%), 제조업(-24천 명, -0.6%)에서는 감소함.
 -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모두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며, 특히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그림 6 참조).

◆ 임시·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감소

- 2008년 1/4분기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09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2천 명(-1.4%)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5,95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12천 명(2.0%)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435천 명, 5.2%)는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99천 명, -1.9%) 일용근로자(-24천 명, -1.2%)는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임금근로자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임시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7 참조).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산업	22,841 (1.2)	23,121 (1.8)	23,409 (1.2)	23,610 (1.3)	23,582 (1.2)	23,051 (0.9)	22,884 (0.9)	23,305 (0.8)
농림어업	1,450 (-2.8)	1,613 (-3.1)	1,952 (-2.7)	1,866 (-3.7)	1,690 (-3.8)	1,388 (-4.3)	1,338 (-4.6)	1,555 (-3.6)
제조업	4,138 (-1.2)	4,119 (-1.4)	4,181 (-1.3)	4,093 (-1.2)	4,120 (-0.9)	4,114 (-0.6)	4,116 (-0.5)	4,100 (-0.5)
건설업	1,772 (2.7)	1,850 (2.4)	1,904 (1.6)	1,843 (-0.3)	1,853 (-0.5)	1,754 (-1.0)	1,706 (-0.7)	1,815 (-1.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43 (-1.0)	5,726 (-0.6)	5,776 (-1.0)	5,722 (-0.2)	5,723 (-0.3)	5,707 (-0.6)	5,688 (-0.5)	5,682 (-0.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357 (4.3)	7,427 (4.4)	7,256 (4.8)	7,674 (5.2)	7,762 (5.0)	7,684 (4.4)	7,641 (4.3)	7,748 (4.3)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363 (2.8)	2,368 (2.6)	2,323 (3.3)	2,396 (2.5)	2,415 (1.8)	2,385 (0.9)	2,376 (1.0)	2,387 (0.8)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8년 3월 고용동향』, 2008. 4.

○ 2008년 1/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77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44천 명(-8.1%)이 감소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888천 명으로 504천 명(2.6%)이 증가함.

◆ 30대, 전학력에서 실업자 및 실업률 감소

○ 2008년 1/4분기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40대를 제외한 전연령에서 감소함.

- 2008년 1/4분기 중 연령별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5~19세(-5천 명), 20대(-14천 명), 30대(-23천 명), 50대(-13천 명), 60세 이상(-4천 명)에서 감소한 반면, 40대(9천 명)에서 소폭 증가
- 2008년 1/4분기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19세(8.5%, -1.1%p), 20대(7.3, -0.1%p), 30대(3.1, -0.4%p), 50대(2.0%, -0.4%p), 60세 이상(1.6%, -0.1%p)에서 감소하였고, 40대(2.4%, 0.1%p)에서 증가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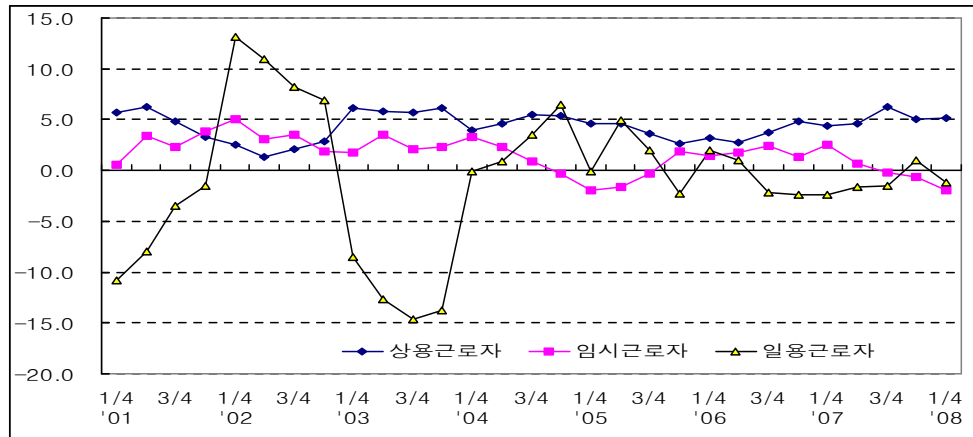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07					2008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체	22,841 (1.2)	23,121 (1.8)	23,698 (1.2)	23,610 (1.3)	23,582 (1.2)	23,051 (0.9)	22,884 (0.9)
비임금근로자	7,199 (-2.2)	7,390 (-1.2)	7,637 (-1.1)	7,589 (-2.2)	7,426 (-1.8)	7,097 (-1.4)	7,048 (-1.2)	7,311 (-1.1)
자영업주	5,895 (-1.9)	6,002 (-1.3)	6,139 (-0.9)	6,128 (-1.3)	6,035 (-1.4)	5,816 (-1.3)	5,814 (-0.6)	5,936 (-1.1)
무급가족종사자	1,304 (-3.2)	1,387 (-0.8)	1,498 (-1.8)	1,460 (-5.9)	1,391 (-3.4)	1,281 (-1.8)	1,235 (-4.1)	1,375 (-0.9)
임금근로자	15,642 (2.8)	15,731 (2.4)	16,061 (2.4)	16,022 (3.0)	16,156 (2.6)	15,954 (2.0)	15,836 (1.9)	15,993 (1.7)
상용근로자	8,404 (4.3)	8,432 (4.1)	8,533 (4.6)	8,753 (6.2)	8,790 (5.1)	8,839 (5.2)	8,804 (4.8)	8,898 (5.5)
임시근로자	5,163 (2.5)	5,188 (1.7)	5,237 (0.7)	5,133 (-0.3)	5,156 (-0.6)	5,064 (-1.9)	5,055 (-1.4)	5,023 (-3.2)
일용근로자	2,075 (-2.4)	2,112 (-2.5)	2,291 (-1.7)	2,135 (-1.5)	2,211 (1.0)	2,051 (-1.2)	1,977 (-1.9)	2,073 (-1.8)
36시간 미만	3,014 (6.4)	2,775 (2.4)	2,564 (1.7)	3,962 (23.7)	2,549 (-5.1)	2,770 (-8.1)	2,807 (-14.4)	2,641 (-4.8)
36시간 이상	19,384 (0.2)	20,074 (0.9)	20,906 (1.1)	19,227 (-2.4)	20,806 (2.2)	19,888 (2.6)	19,697 (3.9)	20,443 (1.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8년 3월 고용동향』, 2008. 4.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체	851(3.6)	840(3.5)	791(3.2)	756(3.1)	734(3.0)	801(3.4)	819(3.5)	810(3.4)
15~29세	346(7.6)	334(7.5)	330(7.3)	322(7.1)	312(7.0)	328(7.3)	326(7.3)	333(7.6)
30~39세	216(3.5)	222(3.6)	203(3.3)	189(3.0)	183(2.9)	193(3.1)	192(3.1)	192(3.1)
40~49세	151(2.3)	145(2.2)	130(1.9)	132(2.0)	126(1.9)	160(2.4)	171(2.6)	162(2.4)
50~59세	96(2.4)	95(2.3)	95(2.2)	80(1.9)	78(1.8)	83(2.0)	84(2.0)	86(2.0)
60세 이상	42(1.7)	44(1.7)	33(1.2)	34(1.2)	35(1.3)	38(1.6)	46(2.0)	37(1.4)
중졸 이하	150(2.8)	148(2.7)	112(1.9)	105(1.9)	109(2.0)	128(2.5)	130(2.6)	126(2.4)
고 졸	426(4.2)	401(4.0)	379(3.7)	378(3.7)	372(3.7)	402(4.0)	412(4.1)	365(3.7)
대졸 이상	274(3.3)	291(3.5)	300(3.5)	274(3.2)	253(2.9)	271(3.1)	277(3.2)	318(3.6)
취업무경험실업자	40	40	40	44	40	44	45	45
취업유경험실업자	810	800	751	712	694	757	774	765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8년 3월 고용동향』, 2008. 4.

-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22천 명)와 고졸(-24천 명), 대졸 이상(-3천 명)에서 모두 감소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2.5, -0.3%p), 고졸(4.0, -0.2%p), 대졸 이상(3.1%, -0.2%p)에서 모두 감소

○ 2008년 1/4분기 중 전체 실업자 801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천 명 증가한 반면,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57천 명으로 53천 명 감소했음.

노사관계 동향

◆ 근로손실일수,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

- 2008년 4월 27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함(표 7 참조).
 - 분규발생건수는 16건으로 전년동기(17건)에 비해 감소한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150,139일로 전년동기(44,080일)대비 240.6% 증가함.

〈표 7〉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개소, 일)

	2007. 4. 27	2008. 4. 27
노 사 분 규 발 생 건 수 (개 소)	17	16
근 로 손 실 일 수 (일)	44,080	150,139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자료: 노동부.

◆ 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 최근에 일·가정 생활의 양립이 기업경영의 핵심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 중심에서 가정생활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 의식이 커지고 있음.
 - 기업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법의 일부 항목을 변경 또는 신설함.
 - 일·가정 생활의 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홍보 등 사업과 전문적 상담서비스 등을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등 정부의 지원기능과 민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새로운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표 8〉 달라진 제도 비교

		현행	변경 및 신설
직장내,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성희롱 행위자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성희롱 행위의 내용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
	성희롱 발생시의 조치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고충의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불이익 조치 금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제도	▲기업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운영	▲법정 제도화
	휴가기간	▲사업장별로 1~5일간 부여 ※ 평균 1.4일(여성개발원, 2004)	▲ 3일(무급)
	청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사용
	위반시 조치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육아휴직	자녀 연령 제한	▲1세 미만 ('07.12.31. 이전 출생한 자녀)	▲3세 미만 ('08.1.1. 이후 출생한 자녀)
	육아휴직 기간	▲휴직기간 : 1년 ▲생후 3년('07.12.31. 이전 출생자는 1년) 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	▲휴직기간 : 1년(현행과 같음) ▲생후 3년('07.12.31. 이전 출생자는 1년) 이내에 휴직을 개시하면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휴직기간 분할사용	▲사업주는 분할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사업주의 재량)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근로자의 권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요건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07.12.31. 이전 출생자는 1세) ▲제외대상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기간	▲휴직기간 : 1년 ▲'08.6.22부터 생후 3년('07.12.31. 이전 출생자는 1년) 이내에 휴직을 개시하면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분할사용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부여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함(의무)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할 수 있음(재량) ▲허용하지 않을 경우 ·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 ·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이익 조치 금지 등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시 징역 3년, 2000만 원 벌금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근로조건 저하 금지 · 위반시 징역 3년, 2000만 원 벌금 ▲연장근로 제한(위반시 1,000만 원 벌금)
	직장복귀 보장 등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위반시 500만 원 이하 벌금) ▲평균임금 계산시 휴직기간 등 제외	

◆ 경총, 「2008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결과, 올해 신규인력 채용규모 3년 만에 늘어날 전망

- 경총은 전국 100인 이상 1,005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 신규인력 채용규모는 전년실적치 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발표함.
 - 이는 2005년 8.4%, 2006년 -2.7%, 2007년 -21.4%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3년만에 늘어난 수치임.
 -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확대의 최대 걸림돌은 인건비 압박(27.3%)이 가장 높았으며, 신규채용 근로자 중 경력직 선호 추세가 꺾이고 신입직 채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노총, 무분별한 공기업 구조조정 저지 위한 성명 발표

- 한국노총은 현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 통·폐합으로 대변되는 구조조정은 공기업에 대한 기본 철학이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공공성 확대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민주노총, 필수유지업무의 노사자율 결정을 위한 집단교섭 보장 촉구

- 민주노총은 2006년 말 개정노조법은 합당한 근거와 명분 없이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넓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사전적 제한조치로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대체근로허용과 긴급조정제도 존치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함.
 - 노조법의 재개정과 함께 노동기본권과 공익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필수유지업무 설정을 위한 집단교섭을 요구함. **KLI**